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 영향요인 -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적용

김정연¹, 김영주^{2*}

¹대전보건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²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Factors influencing Fertility intentions of unmarried men and women -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Jeong-Yeon Kim¹, Young-Ju Kim^{2*}

¹Professor, Dept. of Health & Medical Administration,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미혼 남녀 168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5일부터 4월23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비정규직인 대상자의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구성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규범이 클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클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출산 태도만이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2.2%이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들의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9.0%이었다. 미혼남녀의 출산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키워드 : 출산의도, 계획된 행위이론, 출산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주관적 규범, 미혼 남녀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hat applies the planned behavior theory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birth intention of unmarried men and women.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05 to April 23, 2021 for 168 unmarried men and women. As a result of the study, in general characteristics, male, old, highly educated, occupational, and non-regular worke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childbirth intention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constitu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it w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toward childbirth, the greater the subjective norm, and the greater the perceived behavior control, the higher the intention to give birt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 on men and women.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 in men was attitud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62.2% and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 in women were attitude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on fertility intention was 69.0%.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give birth,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and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low birth rates in the future.

Key Words : Fertility intention, Planned behavior theory,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ubjective norm, Unmarried men and women

*Corresponding Author : Young-Ju Kim(yjkim@hit.ac.kr)

Received March 8,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April 6,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한 국가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을 이용해 측정하는데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그 나라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1].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1]. 우리나라는 2017년의 합계출산율 1.052명 이후로 2020년까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채 1명도 출산을 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서 미래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 국가 성장과 발전 둔화, 젊은층의 노인 부양비 증가, 국가적 사회보장비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시대적 요인들로 인해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2]. 지난 20년 동안 심화되어온 고령화 사회의 추세와 맞물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의 증가는 세대 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여 사회적 통합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3]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역동적 사회 구조의 통찰을 통해 다양한 관점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과 같이 복합적이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회구조 문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인 및 영향요소를 파악한 후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에 사회경제적, 심리적, 개인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라 할 수 있다[4]. 이 이론은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의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지향하는 행위의 의도(intention)를 예측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론이다[5].

계획적 행위이론의 주요개념은 행위에 대한 의도이며, 의도는 '특정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정도'로서, 의도를 통해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

다[6]. 출산의도는 '향후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가능성에 대한 의사 또는 생각의 정도[7]'로 이론에 의하면 행위 이전에 출산의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계획적 행위이론에서 의도의 결정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로 설명할 수 있다[8]. 따라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요인을 파악한다면 출산의도를 높이는 정책이나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향후 5~15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젊은 청년들인 대학생의 출산의도를 파악하고,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계획적 행위이론은 운동행위[9,10], 금연행위[11,12], 출산행위[4], 금주행위[13,14], 피임행위[15], 생식건강행위[16], 건강행동[17,18], HPV 접종행위[19,20] 등 건강증진 및 여성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출산의도에 적용된 계획적 행위이론 선행연구는 소수였고, 더구나 대상자가 대학생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계획적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 및 교육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연구설계)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하여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출산의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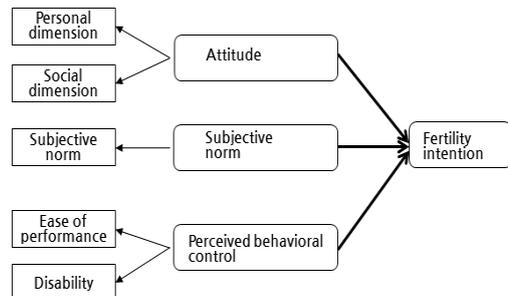


Fig. 1. Framework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연구과정을 설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에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연구 종료 후 1년까지 보관 후 폐기할 것이라는 설명 후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 산출을 위해 G power 3.1.9.4 를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4개로 적용하였을 때 160명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180명에게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응답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168부(93.3%)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2.3.1 출산 태도

출산 태도는 출산에 대한 입장이나 신념으로 방성곤[2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출산 태도는 개인적 차원 3문항, 사회적 차원 4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방성곤[21]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3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7이었다.

2.3.2 출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특정행위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지각[22]을 말한다.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변두영[23]의 도구에서 배우자의 의견을 제외한 3문항 5점 척도이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변두영[23] 연구에서는 .916, 본 연구에서는 .737이었다.

2.3.3 출산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 수행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에 대한 지각으로[2] 자녀출산의 어려움과 관련된 9개 문항, 자녀출산에 도움이 되는 것과 관련된 6개 문항으로 총 15문항 5점 척도로 어려움과 관련된 9개 문항은

역변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실제로 그 행위를 수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한경미[24] 연구에서는 .89이었으면 본 연구에서는 .845이었다.

2.3.4 출산의도

출산의도는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의사 또는 생각으로 홍성란[2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출산 의향, 출산의 중요성, 출산의 당연성, 출산여건의 4문항,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4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 성별에 따른 출산의도와 계획적 행위이론 변수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확인 후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으며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수들과 출산의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70.8%이었고, 연령대는 25-29세 47.0%, 교육수준은 대학원졸이 59.5%, 직업있음이 61.9%로 많았으며, 직업 있는 104명의 경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8.8%, 수입은 200-300만원이 53.8%로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녀출산 의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은 14.57점, 여성은 9.83점으로 통계적으로 남성의 출산의도가 높았다. 성별에서는 35-39세가 13.80점으로 출산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30-34세(12.06±4.96), 25-29세(11.90±4.43), 20-24세(7.09±3.85) 순으로 연령이 높은 그룹의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수준별 자녀출산 의도는 대학원졸(11.94±4.75), 대학교졸(10.23±5.37), 고졸(8.24±2.74)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 소득에 따른 자녀출산 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용형태에 따른 출산의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출산의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고 직업이 있을수록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대상자의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참고).

Table 1. Fertility inten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Variables	N(%)	M±SD	t/F (p)	Scheffe
Sex	Male	49(29.2)	14.57±4.20	6.53 (.001)	
	Female	119(70.8)	9.83±4.30		
	Sub Total	168(100.0)			
Age	20-24 ^a	33(19.7)	7.09±3.85	13.55 (.001)	a(b,c,d)
	25-29 ^b	79(47.0)	11.90±4.43		
	30-34 ^c	36(21.4)	12.06±4.96		
	35-39 ^d	20(11.9)	13.80±3.14		
	Sub Total	168(100.0)			
Education	High school ^a	25(14.9)	8.24±2.74	6.94 (.001)	a=b, b=c a≠c
	College ^b	31(18.6)	10.23±5.37		
	Graduate school ^c	100(59.5)	11.94±4.75		
	Sub Total	168(100.0)			
Occupation	Yes	104(61.9)	12.62±4.59	5.21 (.001)	
	No	64(38.1)	8.94±4.19		
	Sub Total	168(100.0)			
Income	≤200	40(38.5)	12.38±4.47	0.14 (.935)	
	200-300	56(53.8)	12.88±4.82		
	300-400	5(4.8)	12.00±6.93		
	300-400	3(2.9)	12.62±4.59		
	Sub Total	104(100.0)			
Employment form	Regular	82(78.8)	12.52±4.70	13.59 (.001)	
	non-regular	22(21.2)	12.95±4.24		
	Sub Total	104(100.0)			

3.2 계획적 행위이론 변수와 출산의도 수준

연구대상자의 출산의도 수준과 계획적 행위이론 변수인 태도(개인적 태도, 사회적 태도), 주관적 규범, 주관적 행위통제(행위수행의 용이성,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출산 태도는 2.86±0.86, 주관적 규범 3.09±0.94, 지각된 행위통제 2.91±0.62, 출산의도는 2.80±1.19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계획적 행위이론 변수와 출산의도 수준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출산 태도(개인적 태도, 사회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행위수행의 어려움), 출산의도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행위통제 하위변수인 행위수행의 용이성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fertility intention, the sub-variable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differences of by Sex

Variables	Total	Man	Female	t (p)
	M±SD	M±SD	M±SD	
Attitude	2.86±0.86	3.46±.87	2.62±.74	6.36 (.001)
Personal dimension	3.14±1.10	3.87±1.01	2.84±.99	6.11 (.001)
Social dimension	2.66±0.89	3.15±1.01	2.45±.75	4.93 (.001)
Subjective norm	3.09±0.94	3.54±.93	2.91±.89	4.09 (.001)
Behavioral control	2.91±0.62	3.13±.75	2.83±.54	2.91 (.004)
Ease of performance	3.87±0.87	3.62±1.09	3.98±.74	-2.13 (.037)
Disability of performance	2.27±0.88	2.80±.98	2.06±.75	5.31 (.001)
Fertility intention	2.80±1.19	3.64±1.05	2.46±1.08	6.53 (.001)

3.3 계획적 행위이론 변수와 출산의도와와의 상관관계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구성하는 변수인 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출산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출산 태도(r=.764, p=.000), 주관적 규범(r=.523, p=.000), 지각된 행위통제(r=.698, p=.000)가 모두 출산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출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규범이 클수록(의미 있는 타인이 출산을 해야 한다고 기대할 때), 지각된 행위통제(자신이 실제로 그 행위를 수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가 클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적 행위이론의 하위변수인 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fertility intention

Variables	Fertility inten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behavioral control
Fertility intention	1			
attitude	.764***	1		
subjective norm	.523***	.486***	1	
behavioral control	.698***	.545***	.479***	1

p<.05*,p<.01**,p<.001***

3.4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획적 행위이론의 구성변수인 출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Table 4 참고). 회귀모형 분석을 위해 다중공선성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가 .634~.698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432~1.569이었다. 공차한계가 0.1이하, 분산

팽창인자 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보므로 본 연구 결과 모든 변수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118로 기준값 2에 근접하고 있어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었다.

남성의 경우 출산 태도만이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2.2%이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들의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9.0%이었다.

즉 남성의 경우 출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며 여성의 경우 출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또한 자신이 실제로 그 행위를 수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fertility intention

Variables	Man					Female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0.18	.45		-0.40	.694	-2.32	.31		-7.53	<.001
Attitude	0.69	.15	.57	4.55	<.001	0.62	.09	.42	7.27	<.001
Subjective norm	0.14	.13	.12	1.06	.296	0.05	.07	.04	0.76	.446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31	.16	.22	1.93	.060	1.07	.12	.53	8.71	<.001
Adjusted R^2	.622					.690				
F(p)	27.337***					88.595***				

p<.05*,p<.01**,p<.001***

4. 논의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적용하여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출산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업유무, 연령, 학력, 고용형태에 따라 자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남성이고 직업이 있으며, 연령이 높고 고학력자이며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자녀 출산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환경미와 정혜선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자녀 출산의도 연구[4]에서는 연령, 근무형태, 근무기간, 자녀수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의도가 유의하게 낮고, 상시 근무보다 교대근무에서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전은화[26]의 기존 맞벌이 여성에 대한

출산의도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음을, 환경미와 정혜선의 연구[4]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낮음을 나타내 동일한 변수인 연령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 표집 시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연구대상자와 계층을 포함한 확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4]에서 교대근무자의 출산의도가 더 높은 것은 간호사 근무 특성상 교대근무가 많고 상시 근무자보다 더 낮은 연령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정규직에서 출산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 특성상 20~29세 사이 연령이 전체 연구대상자의 66.6%를 차지하여 낮은 연령의 대상자가 많고, 낮은 연령에서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출산의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80 ± 1.19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20~39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4]의 출산의도(미혼 3.68 ± 0.87 , 기혼 3.70 ± 1.14)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7]에서의 출산의도(3.35 ± 1.14)보다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사회의 출산을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28,29]에서 1997년에는 73.7%가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2003년에는 54.5%, 2018년에는 미혼 남성의 28.9%, 미혼 여성의 48.0%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여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가 낮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구성하는 변수인 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출산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4]. 따라서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가 클수록 출산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출산 관련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출산에 대한 사회의 배려와 지지, 가족지지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적 행위이론(TPB)에서 의도의 결정요인이라고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출산 태도만이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2.2%이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들의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9.0%이었다. 한경미와 정혜선의 연구[4]에서 간호사의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변수들의 설명력은 36.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미혼 남성과 여성의 출산의도 설명력은 각 62.2%, 69%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매우 높은 설명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계획된 행위이론(TPB)을 적용하여 미혼남녀의 출산의도를 파악한 본 연구의 개념틀이 매우 적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 결과 미혼 남녀 모두에서 주관적 규범(의미 있는

타인이 출산을 해야 한다고 기대할 때)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상자 전부가 여성인 선행 연구[4]에서는 주관적 규범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가 행해진 2010년도와 본 연구가 행해진 2021년도 기간 동안 미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경제적 여건과 육아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미비하다면 출산을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이 주관적 규범보다 출산의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혼 남성은 출산 태도만, 미혼 여성은 출산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혼 남성은 출산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출산 의도가 높으나, 미혼 여성은 출산 태도뿐만 아니라 출산 행위 수행의 용이성이나 어려움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도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미혼 여성은 향후 출산을 직접 경험하는 주체로서 출산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본인이 전적으로 받기 때문에 지각된 행위통제도 영향을 준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출산의도와 관련하여 세대, 성별, 직업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계획된 행위이론(TPB)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변수들의 영향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반복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미래에 자녀를 출산할 미혼 남녀의 자녀 출산의도를 높이기 위해 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출산 정책과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책과 교육은 초점 대상자의 세대, 성별 등 인구학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계획된 행위이론(TPB)을 적용하여 미혼 남성은 출산에 대한 태도가, 미혼 여성은 출산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출산의도 관련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련 변수들의 영향정도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는 미혼 남녀의 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출산 관련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1). *Live birth and Death Statistic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Online: <https://kostat.go.kr/wsearch/search.jsp>
- [2] M. H. Do. (2011).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4), 163-178.
- [3] Y. M. Choi & Y. H. Park. (2019). Analysis of perceptions of marriage and birth and the pattern of low birth rate. *Citizen and Humanities*, 36, 101-137. DOI : 10.22842/kgucfh.2019..36.101
- [4] K. M. Han & H. S. Jung. (2010). The Factors Affecting the Fertility Intention in General-hospital Nurse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9(1), 41-49.
- [5] M. Y. Gee, J. W. Koo, W. G. Jhang & H. S. Jung. (2003). Analysis of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4(4), 639-645.
- [6]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and J. Beckmann (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11-39. New York: Springer. DOI : 10.1007/978-3-642-69746-3_2
- [7] Richer, K., Podhisita, C., Chamrathironq, A. & Soonthorndhada, K. (1994). The impact of child care on fertility in urban thailand. *Demography*, 31(4), 651-662. DOI : 10.2307/2061797
- [8] Y. H. Lee & K. O. Park. (2021). Factor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of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with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9), 343-350. DOI : 10.15207/JKCS.2021.12.9.343
- [9] S. M. Kim, J. Y. Park & C. H. Han. (2010). Influential Factors on Rehabilitation Exercise Practice in Elderly Limited Activities of Daily-Living: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3), 271-281.
- [10] Hausenblas, H., Downs, D. S., Giacobbi, P., Tuccitto, D. & Cook, B.. (2008). A multilevel examination of exercise intention and behavior during pregnancy. *Soc Sci Med*, 66(12), 2555-2561. DOI : 10.1016/j.socscimed.2008.02.002
- [11] H. J. Hyun. (1998).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and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9(1), 117-127.
- [12] G. M. Kim & M. J. Kim. (2016). Examining Smoking-Cessation Intention among Potential Adolescent Smoker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0(2), 1-22.
- [13] H. F. Yoo. (2000). Koran Undergraduate Students' Intention, Attitude, perceived Control, and Social Pressure for Moderate Drink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1(2), 347-357.
- [14] J. H. Lee, H. S. Jung & K. J. Kim. (2020). The Factors Affecting the Alcohol Abstinence Intention in a General-hospital Male-worker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2(3), 177-190.
- [15] M. H. Kim & K. S. Paek. (1998).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ontraceptive Behavior among Marri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3), 550-562. DOI : 10.4040/jkan.1998.28.3.550
- [16] N. W. An & Y. R. Han. (2018). Influencing Factors of Reproductive Health Behavior in Married Immigrant Women :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J Korean Public Health Nurs*, 32(3), 468-481. DOI : 10.5932/JKPHN.2018.32.3.468
- [17] H. J. Lee & B. H. Cho. (2002). Factors Affection Intentions for Health behaviors among Male Office Workers :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1(1), 31-43.
- [18] Wong, C. L. & Mullan, B. A. (2009). Predicting breakfast consumpt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the investigation of past behaviour and executive function. *Br J Health Psychol*, 14, 489-504. DOI : 10.1348/135910708X360719
- [19] H. M. Park & H. E. Oh.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of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among Mothers of Junior High School Daught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8), 307-318. DOI : 10.5932/JKPHN.2018.32.3.468

- [20] Y. H. Lee & K. O. Park. (2021). Factor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of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with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9), 343-350.
DOI : 10.15207/JKCS.2021.12.9.343
- [21] S. G. Bang. (2012). *PR campaign strategy development low fertility: twenty to thirty years old career women's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following the theory on their childbirth attitude and behavior* Master'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 [22]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on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23] D. Y. Byun. (2015). *Predictors of Fertility-Intention Among the Married Man and Women : Utiliz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aster'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24] K. M. Han. (2009). *An Analysis on Factors to Fertility Intention in General-hospital Nurse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aste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25] S. R. Hong.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on Childbirth : Focusing on the Birthrate and the Will to Give Birth*. Doctoral dissert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buk-do.
- [26] E. W. Jeon. (2014). A Study on the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in Double Income Household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18(3), 325-350.
DOI : 10.18397/kcgr.2014.18.3.325
- [27] S. A. Hong & H. R. Yoon. (2012). A Study on Family Values Influencing on University Students' Childbirth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3), 197-208.
DOI : 10.12811/kshsm.2012.6.3.197
- [28] S. K. Kim. (200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welfare survey*.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9] S. Y. Lee. (2018),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welfare survey*.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김 정 연(Jeongl-Yeon Kim) [종신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2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 (보건학박사)

- 2005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 관심분야 : 건강행위이론, 건강증진, 삶의 질, 건강정책
- E-Mail : jykim@hit.ac.kr

김 영 주(Young-Ju Kim) [종신회원]



- 1992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삶의질, 융합교육, 건강행위
- E-Mail : yjkim@hit.ac.kr